

싱가포르가 벌써 2건의 해양을 가져감

코멘터리

수주는..

① 현대미포조선이 Central Shipping으로부터 MR탱커 1척을 추가로 수주했고, 옵션 1척도 확보했습니다.

해양 프로젝트 경과가...

- ② 베트남 Bock B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4개사가 입찰 서류를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 ③ Chevron의 북해 Rosebank FPSO의 입찰도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BIG3와 Sembcorp이 FEED 검토를 시작했고 내년 3월 기술/가격 제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Chevron은 이후 이를 검토해 2018년말 건조처를 선정하거나, 그 전에 LOI를 맺고 상세설계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일정 업데이트입니다.

2018년은 다수의 해양 프로젝트가 재개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투자포인트입니다만, 최근 해양 결합에서 Sembcorp이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실주...

④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을 제치고 Statoil의 북해 Johan Castberg ph1 HULL을 수주한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싱가포르 Sembcorp이 최종 낙찰 받은 것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한국보다 1억\$이나 낮은 가격 때문입니다. Sembcorp은 삼성중공업의 전통적 고객 Shell의 VITO FPSU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해양은 돌아오지만 과도한 경쟁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⑤ Vale VLOC, 2척 COA를 따낸 SK해운이 중국 대련조선에 발주합니다. 비록 현대중공업이 Polar 15척과 대한해운 2척을 수주했지만, 가격 때문에 한국 선사가 중국에 발주하는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최근 VLOC 신조선가는 현대중공업이 \$80m~\$82m, 중국 신조선가는 \$75m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계에서 몇가지 반가운 뉴슈들...

- ⑥ 현대엘리베이터가, 드디어 중국 신공장을 내년 3월 착공합니다. 확장 이전을 통해 캐파를 기존 1.3만대에서 2.5만대로 늘려 2020년 가동합니다.
- ⑦ 두산인프라코어는 G2엔진 등 디젤엔진으로 중국 시장을 진출을 꾀합니다. 환경규제 기준이 강화되어 G2 엔진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포석입니다.
- ⑧ 두산중공업이 2014년말 수주했지만 지연되던 베트남 응이손 화력발전 사업이 복잡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은 화력발전 사업분야에 임원 축소, 사업 통폐합을 추진합니다. 국내 탈원전 다음, 가스터빈/풍력 등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현대미포조선의 하이투자증권 매각: 올해 손상차손 2,862억원 반영해 장부가 4,500억원

회사명	주요 영업활동	2Q17		4Q16	
		지분율(%)	장부금액(백만원)	지분율(%)	장부금액(백만원)
하이투자증권	증권중개업	85.32	449,963	85.32	736,163
하이자산운용	자산운용업	7.57	7,709	7.57	7,709
			457,672		743,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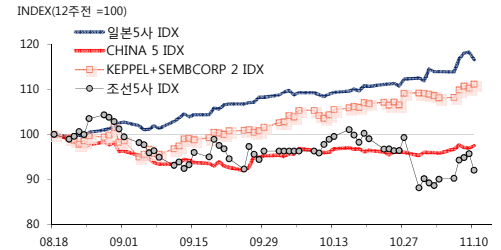
주석: 당반기 중 종속기업인 하이투자증권(주)에 대해 자산손상 징후가 파악되어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추정회수가능금액을 기초로 286,200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 대우조선해양: 3Q17도 서프라이즈=환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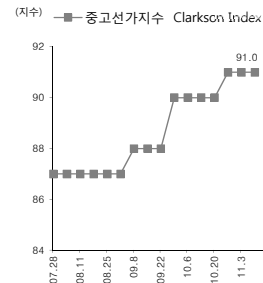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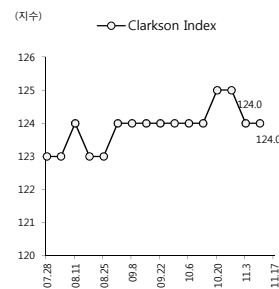
연결	(십억원)							
	3Q16	4Q16	1Q17	2Q17	3Q17⑤	y-y	q-q	컨센서스 10월30일 ⑥ 차이⑤/⑥
매출액	3,053	2,846	2,730	3,458	2,643	-13%	-24%	2,541 4%
영업이익	-141	-940	223	665	165	적전	적전	70 135%
영업외	-28	-363	35	574	-42			-4
세전이익	-170	-1,302	259	1,238	123	적전	적지	66 86%
순이익	-238	-1,362	234	1,255	125	적전	적지	51 144%
영업이익률	-4.6%	-33.0%	8.2%	19.2%	6.2%	10.9%p	-13.0%p	2.8% 3.5%p
순이익률	-7.8%	-47.9%	8.6%	36.3%	4.7%	12.5%p	-31.6%p	2.0% 2.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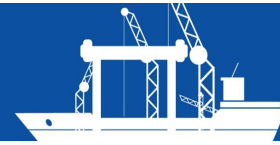
대표 차트

▶ 한/중/일/싱 주가 추세



▶ 신조선가치수, 중고선가지수 보합





주시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악재들 다수

- ▼ 대우조선해양 앞서던 Johan Castberg ph1 HULL, 싱가포르 Sembcorp에 뺏김
- ▼ SK해운, VLOC 2척 중국 대련조선으로 발주
- ▽ 일본, 최초 2만TEU급 컨테이너선 건조
- ▽ 현대미포조선 하이투자증권 판 0.45조원으로, 현대중공업 토지 매입

문제적 대우조선해양: 호재 2가지와 악재

- △ 대우조선, 루마니아 망갈리아조선소 290억원에 매각
- △ 어렵다던 대우조선,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조의 비밀
- ▼ 대우조선해양 앞서던 Johan Castberg ph1 HULL, 싱가포르 Sembcorp에 뺏김

돌아오는 해양: 2018년의 주요 프로젝트들 중 2개 업데이트

- △ 베트남 Block B, 4개사 입찰 서류 곧 제출
- △ Rosebank FPSO, 2018년3월 입찰 시작

기계: 투자하는 엘리베이터, G2 엔진 확대하는 두산인프라코어

- ▲ 현대엘리베이터, 중국 신공장 내년 3월 착공
- ▲ 두산인프라코어, 中 디젤엔진 시장 진출 검토
- ▲ 두산중공업, 베트남 응이손 석탄화력발전 사업 착수 vs. ▽ 두산중공업, 임원 감축·사업 통폐합 조정 추진
- △ 프랑스 CMA CGM, 메가 컨선 "LNG추진 방식 적용" → 두산엔진 기대

ASP & 실적관련(국내외)

△ 신조선가치수와 중고선가치수 모두 보합

신조선가, 중고선가 모두, 모든 선종 보합

▷ TechnipFMC Rotan의 subsea 수주: 삼성중공업

- TechnipFMC가 말레이시아 Rotan FLNG의 subsea 계약을 따냄
- Rotan FLNG는 2020년 가동 예정
- >> 삼성중공업에서 수주한 PFLNG2로, 2016년 작업이 중지되었다가 올해 9월 작업이 재개된 바 있습니다.
- >> 최근의 수주는 Mad Dog2, Coral FLNG 2개이지만, Rotan의 기성도 동사의 해양 매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 유가와, 해양에 베풀려면 삼성중공업입니다.

(16년2월) ▼ JGC, 삼성중공업+JGC에 발주한 PFLNG2 계약취소 또는 2년 지연 협의 중
(17년9월3주) ▲ 삼성중공업에 HOLD 중인 Petronas의 PFLNG Dua, 작업 재개!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해양_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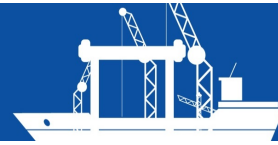
△ 베트남 Block B, 4개사 입찰 서류 곧 제출

- 베트남 PetroVietnam의 자회사 Phu Quoc Petroleum Operating Company가 입찰 주최
- McDermott, Sembcorp Marine,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2만톤 Fixed Platform 입찰 서류 제출 예정
- 2만톤 탐사이드는 600mCFD(3.2MTPA) 가스와 20천b/d Light Oil 생산능력
- 로컬에서 제작할 가능성이 높은 Jacket에는 베트남 PTSC M&C, Viestovpetro가 가장 앞서 있고, PV SY와 PVC MS도 입찰 참여: 소형 탐사이드, Jacket, 잭업 등 제작 능력
- 탐사이드 경험에서는 로컬 PTSC와 다수 로컬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McDermott가 가장 유리한 국면으로 평가됨
- 350천 배럴 용량의 FSO도 발주도 필요
- Block B는 2020년 2분기 가동 예정이며, PetroVietnam 42.9%, Petro Vietnam E&P 26.8%, Mitsui Oil Exploration 22.6%, PTTEP 7.7% 지분 보유
- >> Shell의 Vito를 싱가포르에, 그리고 이번주 Johan Castberg Hull을 싱가포르에 뺏기는 등 해양 시장에서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08월4주) △ 베트남 Block B, 4개 야드 추려 ITB 발송

- 베트남의 Block B 프로젝트는, 3개 야드를 입찰 초청(ITB): 미국 McDermott, 싱가포르 SMOE(SembCorp Marine), 그리고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 대우조선해양은 PQ 단계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함
- Jacket은 베트남의 PTSC(Petro Vietnam Technical Services Corporation)이 제작하기로 이미 결정되었고
- 2만톤 탐사이드(600MCF/d, 20천 b/d)에 대한 입찰
- 4개 잠재 후보군 중 McDermott가 가장 유리한데, 이는과거 PTSC의 Offshore 제작/시공에 기술지원을 했고, 베트남 Su Tu Vang process platform을 제작한 바 있기 때문
- LQ flare tower & bridge, 12개의 WHP 등은 로컬 발주 예정이고
- FSO도 필요하고, drilling rig 신조 입찰도 수반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함
- Block B는 2020년 2분기 생산을 시작해, 주로 베트남 내수 발전원에 공급될 예정: 295km subsea pipeline 공사 별도로 진행

(7월2주) ▲ 베트남 "Block B" 진행: 7월 ITB



△ Rosebank FPSO, 2018년3월 입찰 시작

- 한국의 BIG3(DSME 포함)와 Sembcorp(싱)에 ITB를 발송해, 입찰서류를 받았고
- 이번 분기 4개사는 Chevron의 FEED를 검토해, 내년 3월초까지 Technical & Commercial Bids를 제출할 예정
- 이후 Chevron은 제안서들을 검토해 2018년말 또는 2019년 초 FID 전까지 야드를 선정할 예정
- 앞선 보도와 같이 Spec.은 2016년말 현대중공업과 계약취소한 FPSO(20억\$)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함: 오일 100천b/d, 가스 80mCFD
-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이 앞서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이 과거 Chevron과의 우호적인 관계였던 점이 부각됨
- Chevron이 3월초에 받는 제안서를 9개월 안에 평가하고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본계약은 2018년을 넘길 수도 있을 듯 하지만
- 일각에서는 빠른 진행을 위해 먼저 LOI를 체결하고 상세설계(Detailed Engineering)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주장

(09월1주) △ Chevron의 Rosebank FPSO 4개사로

- Chevron이 곧 ITB를 발송 예정: 한국 BIG3와 Sembcorp
- FPSO는 오일 100천b/d, 가스 80MCF/d 생산용량에, 오일 1/05백만 br 저장용량: Worley Parsons가 FEED를 담당
- 현대중공업에 FPSO를 취소 후, 더 작은 FPSO 건조를 시사했지만 SPEC.에 큰 변화가 없다고 전하기도 함: EPC사들의 가격 경쟁을 유도할 의도라는 진단
- 4개사 중 Sembcorp가 가장 가능성이 낮고, DSME가 Chevron과의 우호적 관계 때문에 유리할 것이라는 평가
- 2018년 상반기 FID, 2022년~2023년 Onstream 예정

(06월3주) ▲ Rosebank에 4사 경쟁: SembCorp과 BIG3

(5월1주) ▲ Chevron의 Rosebank 재입찰: 시장 예상보다 빨리 진행, 곧 ITB

▼ Johan Castberg 발주 연기: 재검토 → 싱가포르에 뱃짐

- Statoil은 Johan Castberg Phase1 Hull+LQ의 본계약 예정일 11월1일을 넘김: 대우조선해양이 우세한 것으로 최근 알려짐
- 이에 대해 Statoil이 "quality control"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DSME는 해양 수주 재개라는 공격에 대해 일반적인 선박 건조 공정과 유사하다는 점, ...
- ... 그리고 가격 할인이라는 공격에 대해 Statoil이 원하는 39개월보다는 더 빠른 29개월 공기를 제시했었다고 주장
- DSME는 노르웨이 Aker Solutions과 팀을 구성한 것으로 전함
- 한편 Statoil은 phase1 LOI 시점을 이번 가을이라고만 말함: FID는 2017년말 예정
- >> 그러나 Johan Castberg Phase1은 이 보도 이후 지난주 금요일, 싱가포르 Sembcorp가 수주한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 Petrobras, 나이지리아 4개 광구에서 지분 철수

- 브라질 Petrobras는 나이지리아 Deepwater 4개 사업에서 지분 철수
- POGBV 지분 50%를 통해 Total의 Akpo, Egina, Chevron의 Agbami, Sapetro의 Preowei 유정 지분을 각각 보유 중인데
- 이 POGBV 지분을 모두 매각 희망: POGBV의 나머지 주주는 BTG Pactual E&P가 40%, Helios Investment Partners 10%

▶ LNG & LNG 추진

△ 스페인 Endesa, LNG선 2척 용선 입찰

- 스페인 유틸리티사 Endesa는 2척의 LNG선을 시장에서 용선 입찰: 입찰서 제한은 11월30일까지
- 용선 기한은 7년 + 옵션 6년 + 6년이나, 5년 + 1년 + 1년, 또는 1년 + 1년 + 1년으로 자유롭게 제시 가능
- 2019년부터 LNG선 운영이 가능해야 해서, 선사들의 기존 tonnage이거나, 투기발주된 미용선 선박이 이 입찰을 노릴 것으로 보임
- 2016년 3척의 LNG선을 구하며 시장에 나섰다가 Knutsen OAS shipping과 1척(현대중공업 건조)만을 계약해, 시장이 실망한 바 있는데, 이번에 잔여 2척을 구하는 셈
- Endesa는 미국 Christi LNG로부터 2.25MTPA를 20년간 수입 예정
- >> 신조 발주로 연결되지는 않는 LNG 입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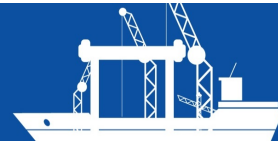
(10월3주) △ Endesa, LNGc 2호선 발주 준비

- 이태리 에너지사 Enel이 보유한 스페인의 Endesa는 2번째 LNG선 발주를 위해 시장과 접촉: 2016년 중순 1호선을 현대중공업에 Knutsen을 통해 용선 발주
- 용선은 3년, 5년, 7년으로 고민 중
- 2016년 발주에 Knutsen은 현대중공업에 옵션을 보유하고 있어, 2호선도 Knutsen과 현대중공업이 수주할 가능성과
- 1호선 입찰에서 안타깝게 진, BW LNG의 2호선 용선 수주 가능성도 있다고 전함

(06월4주) △ Knutsen, 스페인 Endesa LNG 용선 기반으로 HHI에 LNG선 발주

▶ 중국에서 벌크선에 적용된 가장 큰 LNG-fuel 내년 인도

- ESL Shipping이 중국 Sinotrans & CSC Jinling SY에 2척이 26k DWT 벌크선을 건조 중이며, 내년 인도 예정, 2013년 가을 발주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①Central Shpg Monaco→Hyundai Mipo, PTK(50천) 1척

(NEW) ▲ Pistiolis의 Central Shipping → 현대미포조선(울산), MR2 1+1척, \$35m

- Central Shipping은 현대미포조선에 50k DWT MR탱커 확정 1척과 옵션 1척을 발주: 인도는 확정분이 2019년 1월, 옵션이 행사될 경우 2월
- 동 선사 여태 Vinashin을 애용해왔는데, 비나신의 백로그가 2020년까지 꼭 있기 때문에, 울산에 발주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
- 이에 따라 신조선가는 \$35m으로 비나신의 \$32m보다 높았음: 선사측은 "very, very high spec"이라고 주장
- 이번 발주는 동 선주의 11번째 현대로의 선박발주: 1호선을 2014년 인도 받은 이후 7척을 운영 중이며, 1척이 올해, 2척이 내년초 인도 예정

(09월3주) △ Central Shipping → Top Ship, MR 옵션: 용선료 양호

(02월4주) ▲ 현대미포조선, 그리스 Pistiolis에서 MR 탱커 추가 수주

②Union Maritime Ltd→Hyundai Mipo, PTK(50천) 2척

(5월5주 Flash) ▲ Union Maritime, 현대미포조선에 MR탱커 2+2척 추가 발주

- Union Maritime은 최대 \$128m의 MR탱커 확정 2척과 옵션 2척을 현대미포조선에 발주: 인도는 3Q18
- 이번 Union의 MR탱커는 현대미포조선의 6번째 탱커 발주 선사: 총 16척 수주
- 올해 수주한 16척은 Tier II 슬롯을 \$32m 마케팅해온 것인데, 이번 계약건이 마지막 Tier II인 것으로 전함
- 향후 Tier III 마케팅에 집중할 예정인데, Tier III는 1호보다 신조선가가 \$1m~\$1.5m 높음

③Eastern Pacific Shpg→Hyundai HI (Ulsan), CONT(14천) 4척

(09월5주 Flash) ▲ EPS → 현대중공업, \$400m 컨테이너선 4척 + 옵션

- 싱가포르 Eastern Pacific Shipping이 현대중공업에 14,000teu 컨테이너선 확정 4척과 옵션 2척~4척의 본계약
- 선박은 2020년초부터 인도되며, Tier III 스펙에 신조선가는 적당 \$100m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함
- EPS와 HHI은 신조 계약을 부인
- EPS는 PCC, 벌크, 가스선, 탱커, 컨테이너선 등 총 88척의 선단을 보유한 선주로 최근에는 수주잔고에 아프리카막스 탱커 MR, 대형 벌크선, Feed선을 보유
- 이번 발주는 최근 용선발주를 진행해온 Hapag-Lloyd, IRISL, ZIM으로의 용선 발주일 것으로 추정

▼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 SK해운, VLOC 2척 중국 대련조선으로 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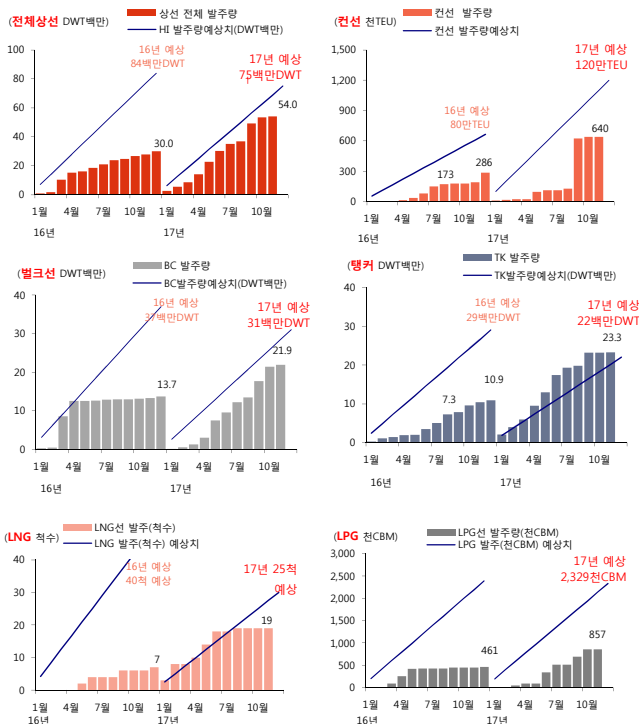
- SK해운은 Vale와 COA 체결한 2척의 건조처로 중국 DSIC(Dalian Shipbuilding Industry)를 선정: 2019년말~2020년초 인도
- LNG-Ready에, 척당 신조선가는 \$76m
- SK해운측은 DSIC로의 발주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힘
- Polaris의 경우 15척의 VLOC를 현대중공업에 발주했는데 신조선가가 \$80~\$82m
- 중국 ICBC FL은 로컬 Qingdao Beihai SB에 6척+3척을 발주했는데, 신조선가는 \$75m으로 전해짐

△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에 최대 22천teu, 12척~14척 발주 추진

- 여러 소스를 통해 현대상선의 최대 22천teu 12척~14척 발주설이 알려짐
- 아시아-유럽 항로 투입 예정이며, 2M 얼라이언스와의 Slot Exchanges를 위한
- 현대상선은 64척의 컨테이너선을 운영 중이며, 최근 한진중공업-수빅에서 11천teu 2척을 \$162m에 리세일 매입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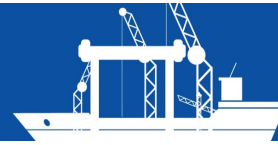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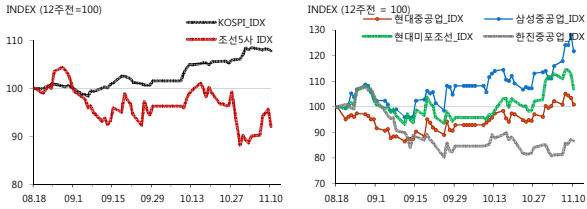
▶ 신조 발주 내역 - 한/중/일 주간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Type	크기	인도	척수
17년10월3주								
BIG6	Hyundai Mipo	17.6.1	유럽	Chartworld Shpg.	PTK	50k DWT	2018~2019	2
한국	Dae Sun Shipbuilding	17.7.1	한국	Alpha Maritime Co.	PTK	4k DWT	2019	1
중국	Jiangsu New YZJ	17.10.17	유럽	Mosvold Shipping	BULK	180k DWT	2019~2020	2
	Tsuneishi Zhoushan	17.10.13	일본	Tsuneishi Holdings	CRUISE	1k Berths	2020	1
17년10월4주								
BIG6	Hyundai HI (Ulsan)	17.10.23	한국	Polaris Shipping Co	BULK	325k DWT	2021~2022	5
		17.10.13	유럽	Vitol Group	LPG	84k cu.m.	2019	2
중국	COSCO Guangdong	17.6.1	유럽	Lomar Shipping	CONT	2k TEU	2020~2021	3
	Jiangsu New YZJ	17.10.12	유럽	Navibulgar	BULK	45k DWT	2020	2
	Fujian Funing S.B.	17.7.1	아시아	Unknown Indonesian	FERRY	64k DWT	2018	1
	Chengxi Shipyard	17.10.16	아시아	Nova Shpg & Log	OTHERS	64k DWT	2019	2
		17.7.1	아시아	Nova Shpg & Log	OTHERS	64k DWT	2019	2
	CSC Jiangdong	17.5.1	중국	Zhoushan Guanguan	BULK	10k DWT	2018	4
	Fujian Southeast SB	17.10.20	중국	Fujian Yonghang	BULK	21k DWT	2019	1
		17.8.31	중국	Fujian Anda Shpg	BULK	21k DWT	2019	1
	Ningbo Xinle SB	17.10.23	중국	Shanghai Dingheng	PTK	9k DWT	2019~2021	10
17년11월1주								
BIG6	Hyundai HI (Ulsan)	17.10.26	한국	Korea Line	BULK	325k DWT	2019~2020	2
중국	Jiangsu New YZJ	17.11.1	유럽	Chartworld Shpg.	BULK	82k DWT	2019	1
		17.10.30	아시아	Regional Cont Lines	CONT	2k TEU	2019	2
		17.10.10	유럽	Zihni Group	BULK	82k DWT	2019	1
	New Times SB	17.10.13	유럽	2020 Bulk	BULK	208k DWT	2020	2
	CSC Jinling Shipyard	17.10.30	중국	Zhongguo Shipping	CONT	2k TEU	2019~2020	6
		17.10.26	Unknown	Qingdao Da Tong	BULK	82k DWT	2019	1
일본	Sasebo HI	17.5.1	유럽	Halcoussis Z. & G.	BULK	85k DWT	2019	1
17년11월2주								
BIG6	Hyundai Mipo	17.11.3	아프리카	Central Shpg Monaco	PTK	50k DWT	2019	1
		17.8.25	유럽	Union Maritime Ltd	PTK	50k DWT	2019	2
	Hyundai HI (Ulsan)	17.9.29	아시아	Eastern Pacific Shpg	CONT	14k TEU	2019~2020	4
민영	Nantong COSCO KHI	17.5.1	유럽	Oldendorff Carriers	BULK	61k DWT	2019	3
						62k DWT	2019	1
	Gangzha Shipyard	17.1.1	아시아	Vallianz Holdings	OTHERS		2017	1
	Taizhou Kouan SB	17.11.8	유럽	W Marine Inc.	BULK	82k DWT	2020	1
			아시아	Tomini Shipping	BULK	82k DWT	2019	3
			러시아/CIS	Aquavita Intl	BULK	82k DWT	2020	1
		17.9.1	유럽	Schulte Group	BULK	39k DWT	2019	1
	New Times SB	17.10.13	유럽	Golden Ocean Group	BULK	208k DWT	2019	2
일본	Oshima Shipbuilding	17.2.1	유럽	Oldendorff Carriers	BULK	62k DWT	202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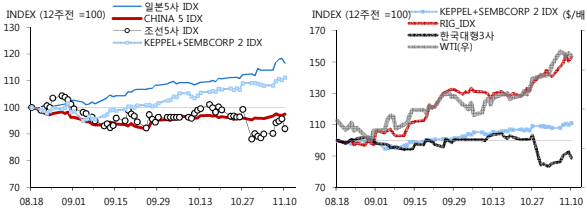


Peer Group 등 Index

▶ 한국 조선 대형3사, 중형3사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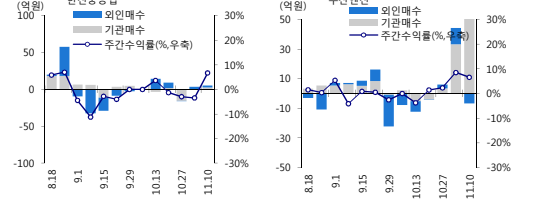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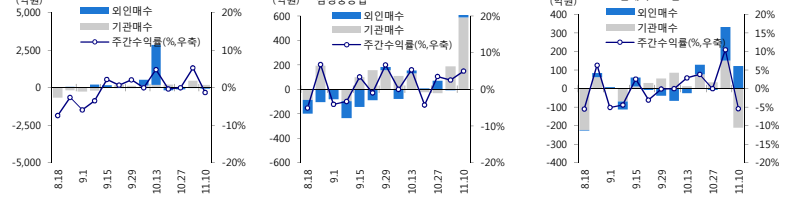


▶ 조선업 한중일



조선 수급

▶ 조선6사 수급



국내 보도

▶ 공통 보도

▼ 韓조선 3사, 북해 해양플랜트 수주전 낙마...싱가포르 업체 선정

<http://lnr.li/8up1b>

싱가포르 셉코프 마린은 10일 노르웨이 스타토일과 '요한 카스트버그' 부유식 원유 생산설비(FPSO)의 '파트1' 부분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발표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금액이 약 4억9000만달러(약 548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
입찰 중반 대우조선의 수주가 가장 유력하다고 분석했지만, 결국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것은 셉코프마린인 것
외신들은 대우조선이 5억7500만달러를 입찰가로 써냈다고 보도했는데 이때도 저가수주 논란이 있었음
셉코프마린의 입찰가는 한국 조선소 입찰에서는 따라잡기 어려운 금액
곧 결정될 파트2 입찰에는 노르웨이 현지 조선소 2곳을 비롯해 삼성중공업, 셉코프마린이 참여
셉코프마린은 최근 셀이 발주한 멕시코만 '비토'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U)의 우선협상대상자에도 선정
지난해 워낙 해양플랜트 발주가 없다보니 싱가포르 조선소들까지 대형 해양플랜트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일감잡기 만만치 않네"...초대형 광석운반선 수주 한국 대신 중국으로 향하나

<http://lnr.li/GvUq11>

국내 해운사들이 브라질 발레에서 따낸 20척의 용선 계약 중 8척에 대한 건조 조선사를 정하지 못함
팬오션과 H라인, SK해운은 각각 4척, 2척, 2척의 용선 계약을 따냈으나 아직 배를 지을 조선소를 정하지 않았음
팬오션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선박 발주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중국 조선사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해운업계에서는 나머지 조선소 역시 국내보다 중국 조선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봄
: 중국 조선사들은 인건비 등이 낮아 한국 조선사들보다 배값이 10% 이상 싸다는 게 조선-해운업계의 공통된 평가
폴라리스쉬핑은 다른 해운사에 비해 운임비를 10% 이상 높게 받아 그나마 국내 조선사에 일감을 줄 수 있었다는 게 해운업계의 전언

△ 프랑스 CMA CGM, 메가 컨선 "LNG추진 방식 적용"

<http://lnr.li/Vy3RZ>

CMA CGM은 독일 본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에서 ...
... 2만2000TEU급 컨테이너선 9척에 LNG연료를 엔진에 공급하는 LNG이중연료(Dual Fuel) 엔진을 적용하기로 결정
LNG 연료는 기존 벙커유 대비 이산화탄소(CO2)배출을 최대 25% 줄이고, 이산화황과 초미립자는 99%, 질소산화물은 85% 감소
또, 선박제조에너지지수(EEDI, Energy Design Index)는 친환경연료를 활용하면서 기존 연료 대비 선박의 에너지효율이 20% 증대될 것
עתד 건조비용이 최소 2000만달러 이상 늘어날게 되며 에너지가격 변동성 및 LNG공급 시설 등이 향후 LNG추진 선박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해왔기 때문에
CMA CGM은 비싼 가격과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LNG이중연료 선박 발주를 두고 고민해왔지만
프랑스 석유메이저인 토탈(TOTAL)이 LNG추진 선박 건조를 적극 제안하면서 이번 결정
이에 토탈이 CMA CGM이 2020년까지 인도받을 이들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LNG벙커링선 발주 입찰을 추진할 것

▽ 일본, 최초 2만TEU급 컨테이너선 건조

<http://lnr.li/sciD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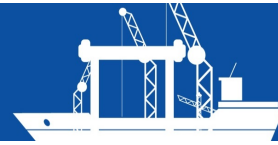
이마바리조선(Imabari Shipbuilding)이 지난 2015년 자국 선사인 몰(MOL, Mitsui O.S.K Lines)로부터 수주한 2척의 2만TEU급 컨테이너선 중 첫 호선을 인도
이 선박은 길이 400m, 폭 58.5m, 높이 32.9m로 이마바리조선이 지난 2015년 2월 몰(MOL)로부터 수주한 2척의 시리즈선 중 첫 번째 선박
수주한지 2년8개월만으로 나머지 선박은 오는 2018년 1월 인도될 예정

▶ 현대중공업 보도

▷ 하이투자증권, 4500억원 상단에 DGB금융지주 품으로 넘어가

<http://lnr.li/QYhS4>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하이투자증권 지분 85.32%와 자회사인 하이자산운용과 현대선물을 합쳐 4500억원 상단에 인수 결정
9일 하이투자증권 최대주주인 현대미포조선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
현대중공업은 당시 하이투자증권 매각을 통해 6000억~7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방침
1500억~2500억원을 밀치면서라도 하이투자증권을 넘기려 하는 데에는 공정거래법상 현대로보틱스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하이투자증권을 가능한 한 빨리 파
9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가의 10% 가량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뒤 금융당국에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
하이투자증권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DGB금융지주는 5년 고용 보장과 함께 단협 승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 시너지를 기대합니다.



▽ 하이투자증권 팔고 현대중공업 토지 산 현대미포조선, 왜?

<http://lnr.li/xUHL>

9일 보유 중인 4500억원 규모의 하이투자증권 주식 3억4243만7628주 전량을 처분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현대미포조선은 하이투자증권 매각과 동시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울산공장 해양플랜트 부지와 건물, 구축물 등 일부를 4430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
: 해양사업본부 부지 일부(31만2784㎡)와 울산 남구 황성동 현대중공업 용연공장(34만7712㎡) 등 총 66만490㎡(약 20만 평) 규모의 생산부지
관계자는 "현재 해양플랜트 잔여 일감은 1기뿐이어서 유휴 부지가 많은 데다 현대미포조선이 임대해 쓰는 장생포 부지를 내년 3월에 반납해야 한다"며 ...
... "이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부지를 취득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
관계자는 "부지확보가 필요한 현대미포조선의 상황이 있지만,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함
이미 영업이익의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도 수주회복에 대한 장담도 할 수 없는 상황: 선제적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 삼성중공업 보도

▷ '입감절벽' 삼성중 생산직 순환휴직... 3천명 대상 2개월씩

<http://lnr.li/s29dG>

거제조선소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1월부터 순환휴직을 시작: 생산직 근로자 480명이 지난 1일부터 휴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힘
내년 6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생산직 근로자 3천명가량이 2개월씩 순환휴직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
휴직기간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 유휴 인력들을 대상으로 용접, 기계, 전기, 기관설치 등 직무역량 교육을 7주씩 실시할 예정

▲ '수주 낭보' 삼성중, 차입금 1.6조 갚았다

<http://lnr.li/GcgA0>

올 들어 차입금을 1조 6000억 원가량 줄임
신규 수주 확보에 따른 선수금 증가로 현금흐름이 개선된 것이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
지난 9월 말 연결기준 총 차입금은 약 3조 7000억 원 - 현금성 자산 1조 1007억 원 = 순차입금은 2조 5935억 원
지난해 말 기준 총 차입금은 5조 3000억 원으로, 올해에만 약 1조 6000억 원을 줄인 셈
헤비테일(Heavy-tail) 방식의 선박 및 설비들이 많이 인도된 것도 자금수지 개선으로 이어짐
삼성중공업은 올초부터 지난 9월까지 42척의 선박 및 설비를 인도: 이는 2014~2016년 평균 인도량인 30척보다 40%가량 많은 수준
△인팩스 CPF(해양가스생산설비) △스타토일 작업리프 2기 △셸 프릴루드 FLNG(부유식 LNG 생산설비) △엔스코 드릴십(SN2096) △에지나 FPSO(SN2089) 등이 거제조선소를
부채비율이 지난해 말 174%에서 지난 9월 말 116%로 60%포인트 가량 하락

▽ 삼성중 크레인사고 미지급 휴업수당 27억...포기각서 받기도

<http://lnr.li/O1jUR>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99곳에 대해 지난 9월 근로감독을 하고 크레인사고로 인한 휴업수당 미지급 실태를 파악
노동자 1만3천773명 가운데 9천432명이 지급받아야 할 법적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

▶ 대우조선해양 보도

△ 어렵다던 대우조선,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조의 비밀

<http://lnr.li/GMTwi>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조945억원을 기록: 영업이익률은 12.7%로 두 자릿수
가운데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4000억원 안팎으로 추정
회사는 해양플랜트 등 사업 부실 우려로 대손충당금 약 8100억원을 쌓아뒀는데, 이 가운데 약 3900억원을 상반기에 환입
관계자는 "3분기에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
자산매각을 통한 일회성 이익 반영분은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
자회사 디섹(약 700억원)과 급식사업 자회사 웰리브(약 650억원), 대우조선해양건설(약 500억원)을 매각했으며 서울 마곡 연구개발센터 부지 및 당산동 사옥 등 부동산 자산도
부동산 자산 매각으로 들어온 돈은 500억원 안팎
올해 말까지 약 2조7700억원 규모의 자구 목표 중 10월말까지 약 2조4500억원을 달성해 약 88.4%의 자구안 이행률

▷ 1兆 넘어진 대우조선 영업이익, 지속된 착시효과

<http://lnr.li/PSiHO>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065억원으로 1870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한 지난해 대비 흑자전환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조945억원을 기록: 영업이익률은 12.7%로 두 자릿수
1조원대 영업이익 가운데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 이를 뺀 나머지의 상당 부분도 자산매각과 인적구조조정에 따른 효과
올해 25억 7000만달러의 수주실적: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수주규모는 각각 75억달러, 65억달러
올해 말까지 약 2조7700억원 규모의 자구 목표 중 10월말까지 약 2조4500억원을 달성해 약 88.4%의 자구안 이행률

▲ 대우조선, 루마니아 망갈리아조선소 290억원에 매각

<http://lnr.li/T8bcl>

네덜란드 1위 조선업체 다 멘 그룹과 망갈리아 조선소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
망갈리아 조선소 지분 51%를 290억원에 다 멘 그룹에 넘길 예정
1997년 당시 대우그룹 계열사였던 대우조선해양이 루마니아 국영조선소 '2MMS'와 합작해 설립한 회사
대우조선은 보유지분 51%에 대해 전액 손상 처리하고 잠재부실 충당금을 쌓았고, 동시에 인력감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매각, 청산, 수리선 전환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도
2016년 초부터 다 멘 그룹과 망갈리아 조선소 매각 협상을 진행했고, 1년 9개월 만에 이날 타결
올해 말까지의 자구 목표액 2조7천700억원 가운데 이날 기준으로 90%에 이르는 2조4천800억원을 이행

△ 핵추진잠수함 도입 가시화, 설레는 대우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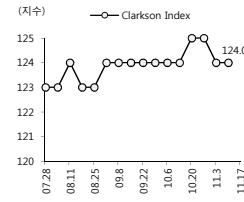
<http://lnr.li/6Uqec>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 획득과 관련해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향후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 예상
한미 정상은 한국이 최첨단 무기를 획득하고 개발하기 위한 협의도 시작하기로 함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물 속에서 군사작전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잠수함이 최대 2~3주밖에 잠수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성능이 훨씬 뛰어남
그동안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만 사용하도록 규제를 받으면서 핵추진잠수함을 독자개발하거나 사오지 못했음
핵추진잠수함은 계약금액이 2조 원을 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핵추진잠수함을 수주하면 수주기간을 채우는 데도 효과적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이후 해상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7건의 특허를 받았고 3건의 연구를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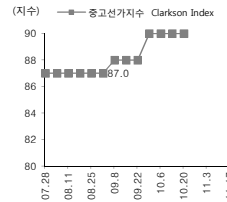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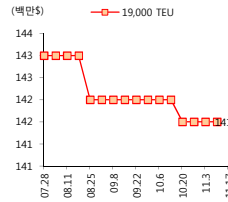
▶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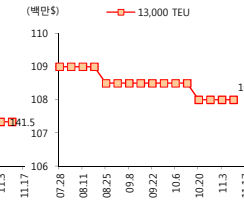
▶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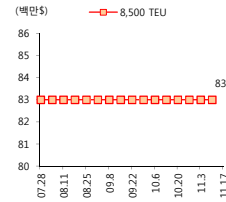
▶ 메가 울트라박스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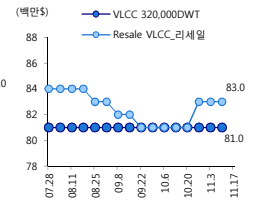
▶ 메가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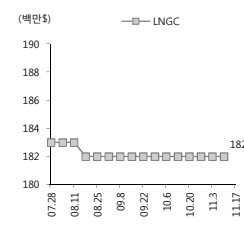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 8,500t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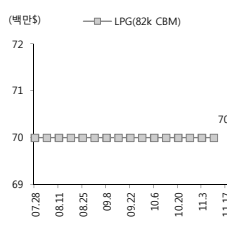
▶ 탱커 VLCC의 신조 vs 리세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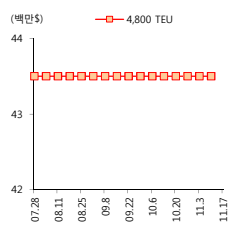
▶ LN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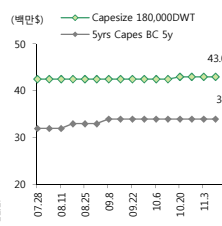
▶ LP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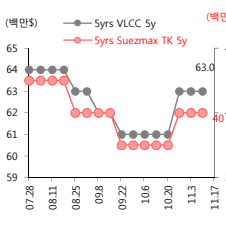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 신조선가 4,800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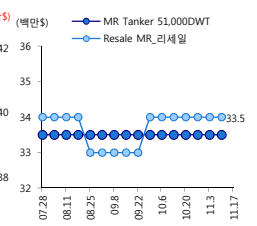
▶ Capesize 벌크선 - 신조, 중고선가



▶ MR탱커 신조vs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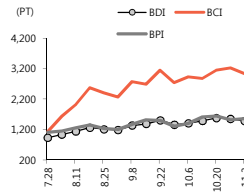


▶ MR탱커 신조vs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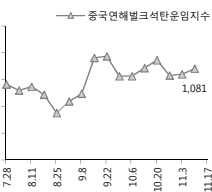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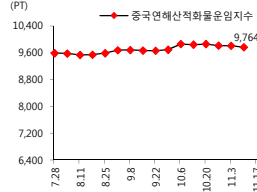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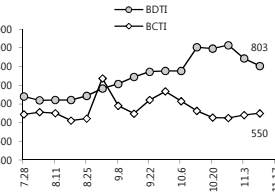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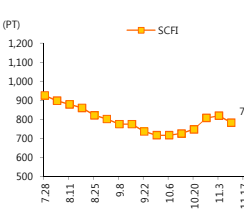
▶ 중국연해선적화물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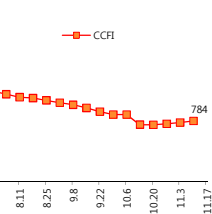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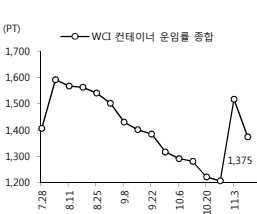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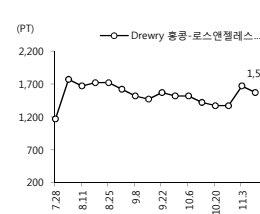
▶ 컨선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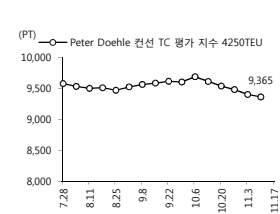
▶ 컨선 지표들



▶ 컨선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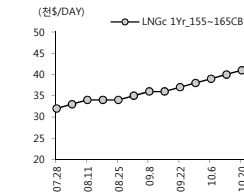


▶ 컨선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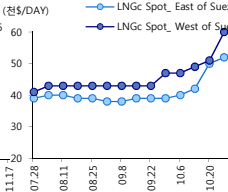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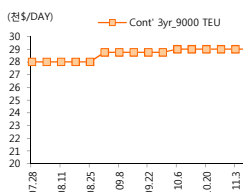
▶ LNG선 1yr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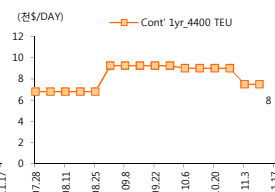
▶ LNG선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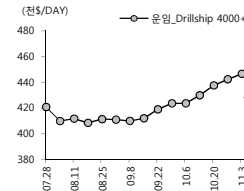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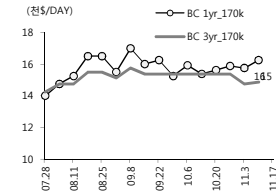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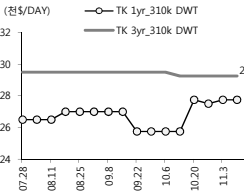
▶ 드릴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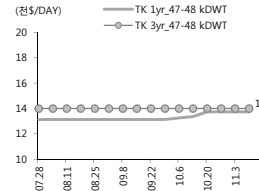
▶ 벌크선 - 케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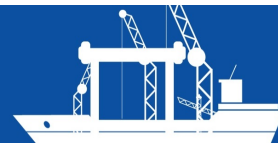


▶ 탱커 - VL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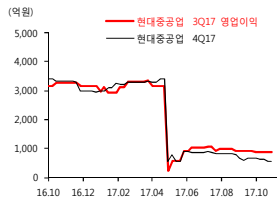
▶ 탱커 - 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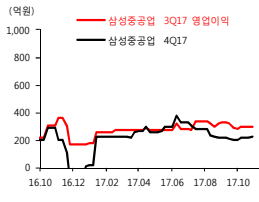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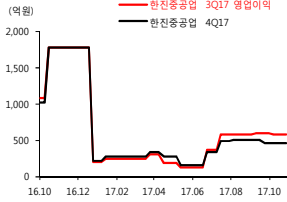
▶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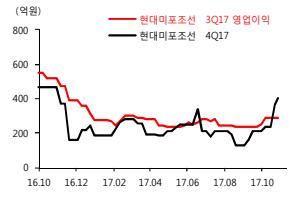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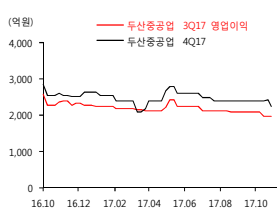
▶ 한진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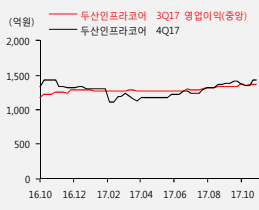
▶ 현대미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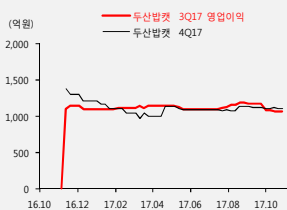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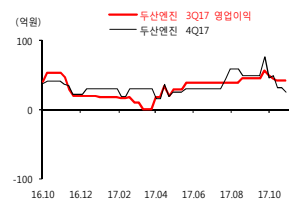
▶ 두산인프라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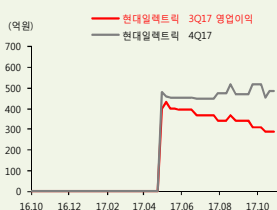
▶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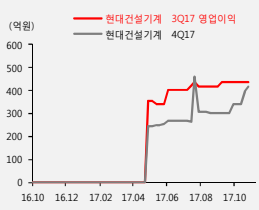
▶ 두산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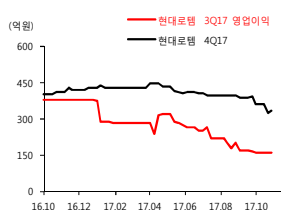
▶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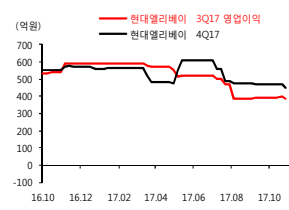
▶ 현대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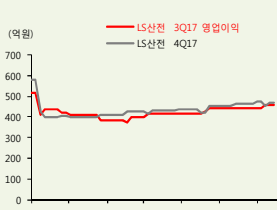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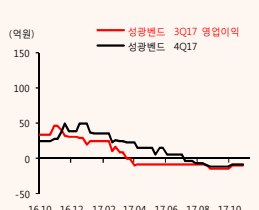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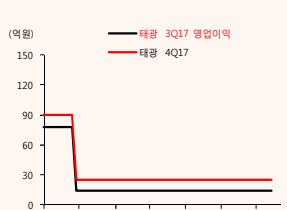
▶ LS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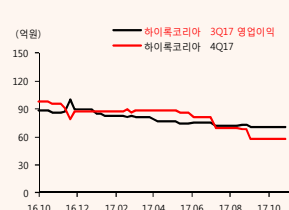
▶ 성광벤드



▶ 태광



▶ 하이록코리아



출처: Dataguid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2017 EPS(원)											Chang(%)		VALUATION	
그룹	종목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10.14	17.10.21	17.10.28	17.11.04	17.11.10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7PE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4,946	6,109	5,812	19,290	30,460	33,446	33,446	42,966	42,951	123%	41%	3.7	157,500
	삼성중공업	313	291	270	285	286	291	291	314	309	9%	8%	40.7	12,600
	현대미포조선	3,750	4,820	8,676	9,759	10,822	11,231	11,231	18,291	19,172	96%	77%	5.5	105,000
	한진중공업	-203	-269	-123	-418	-764	-883	-883	-883	-883	적지	적지	-4.4	3,890
두산	두산중공업	1,433	1,454	1,061	689	601	601	690	768	-447	적지	적지	-39.8	17,800
	두산인프라코어	813	808	870	890	896	911	925	980	991	11%	11%	9.9	9,800
	두산엔진	172	178	188	177	155	166	166	166	142	-20%	-8%	32.4	4,610
	두산건설	25,906	28,411	32,313	30,769	30,502	29,497	29,497	30,025	30,509			11.3	343,500
기계	현대일렉트릭	26,837	27,046	26,902	26,424	26,323	25,810	25,440	25,434	25,232			8.8	222,500
	LS산전	3,563	3,673	3,862	3,900	3,925	3,929	3,928	4,106	4,106	5%	5%	14.9	61,200
	현대엘리베이터	5,387	5,326	4,991	4,420	4,290	4,290	4,290	4,481	4,029	-9%	-6%	13.8	55,600
	현대로템	645	639	523	465	419	419	419	409	411	-12%	-2%	48.3	19,850
방산	한국항공우주	2,503	2,456	2,200	1,625	1,418	1,303	1,303	1,055	1,055	-35%	-26%	50.1	52,900
	한화테크윈	2,266	2,200	1,964	1,807	1,695	1,628	1,604	1,482	1,192	-34%	-30%	32.3	38,550
	LIG넥스원	3,768	3,705	4,557	4,651	4,681	4,681	4,747	4,656	2,975	-36%	-36%	20.1	59,800
	성광벤드	-83	-75	-82	-148	-189	-178	-178	-178	-178	적지	적지	-57.5	10,250
태광	태광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0%	0%	54.9	10,350
	하이록코리아	1,909	1,896	1,837	1,869	1,873	1,873	1,873	1,873	1,947	4%	4%	14.1	27,400

그룹	종목	2017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10.14	17.10.21	17.10.28	17.11.04	17.11.10	2017	2018	2017 PBR
조선	현대중공업	209,808	207,712	205,482	212,707	217,167	217,544	217,544	226,187	226,656	19%	1%	0.7
	삼성중공업	18,596	18,788	18,711	18,724	18,767	18,762	18,762	18,867	18,821	2%	1%	0.7
	현대미포조선	113,674	113,175	119,596	121,335	118,941	119,216	119,216	126,266	126,266	15%	3%	0.8
	한진중공업	8,006	8,453	8,810	8,679	8,207	8,025	8,025	8,025	8,025	-11%	2%	0.5
두산	두산중공업	31,446	30,702	30,118	30,062	30,126	30,126	30,609	30,922	29,377	-2%	5%	0.6
	두산인프라코어	10,409	10,684	10,868	11,050	10,368	10,419	10,768	10,683	10,694	9%	10%	0.9
	두산엔진	7,857	7,877	7,949	7,921	7,747	7,784	7,784	7,773	7,773	2%	2%	0.6
	두산건설기계	233,248	231,663	234,252	267,853	282,415	282,415	282,415	293,900	303,559	10%	12%	1.1
기계	현대일렉트릭	232,775	232,450	225,780	243,098	242,828	242,828	247,744	276,425	276,425	9%	10%	0.8
	LS산전	39,138	38,940	39,086	39,113	39,413	39,419	39,360	39,589	39,589	10%	11%	0.0
	현대엘리베이터	37,757	37,757	37,050	35,026	35,026	35,026	35,026	36,269	34,503	12%	12%	1.6
	현대로템	17,061	17,059	16,964	16,860	16,758	16,758	16,758	16,746	16,746	2%	5%	1.2
방산	한국항공우주	16,307	16,256	15,904	15,370	15,299	15,351	15,351	15,214	15,214	7%	15%	3.5
	한화테크윈	45,433	45,667	45,246	45,013	44,892	44,979	44,672	44,072	44,062	3%	4%	0.9
	LIG넥스원	31,472	31,402	32,127	32,210	32,241	32,241	32,395	32,155	30,255	10%	13%	2.0
	성광벤드	16,512	16,540	16,540	16,479	16,442	16,442	16,442	16,442	16,442	-1%	1%	0.6
태광	태광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	2%	0.6
	하이록코리아	24,001	23,849	23,776	23,800	23,800	23,800	23,800	23,800	23,947	8%	7%	1.1

출처: Dataguide



3Q17 실적 시즌

▶ 한국카본 적자전환, 성광벤드 적자폭 확대는 불황에 따라 당연한 가운데, OPM 19.6%를 지킨 하이록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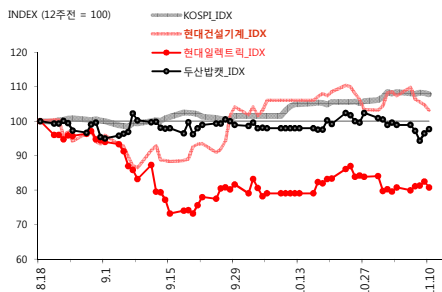
표 > 성광벤드 3Q17 Review										2017.11.10					(십억원, %)		
	3Q16	4Q16	1Q17	2Q17	3Q17P@	y-y	q-q	컨센서스@	GAP(③/④-1)	2015	2016	2017E	2018E	2019E			
매출액	48.0	47.1	35.0	40.4	38.7	-19.3%	-4.2%	38	2.2%	249.9	203.1	157.0	172.0	188.0			
영업이익	0.0	-1.6	-1.1	-2.0	-4.3	적전	적지	-1	291.4%	22.8	2.9	-5.0	13.0	14.0			
세전이익	-2.4	3.9	-5.1	-0.4	-3.5	적지	적지	-1	265.6%	26.5	6.1	-7.8	13.3	14.6			
순이익	-1.9	3.1	-3.9	-0.3	-2.6	적지	적지	-1	269.7%	19.5	4.6	-6.0	10.0	11.0			
영업이익률	0.1%	-3.5%	-3.2%	-5.0%	-11.1%	-11.2%p	-6.1%p	-2.9%	-8.2%p	9.1%	1.4%	-3.2%	7.6%	7.4%			
세전이익률	-4.9%	8.3%	-14.7%	-0.9%	-8.9%	-4.0%p	-8.0%p	-2.5%	-6.4%p	10.6%	3.0%	-5.0%	7.8%	7.8%			
순이익률	-4.0%	6.5%	-11.1%	-0.8%	-6.7%	-2.8%p	-5.9%p	-1.9%	-4.9%p	7.8%	2.2%	-3.8%	5.8%	5.9%			

<표> 한국카본 3Q17 Review										2017.11.07						(십억원, %)	
	3Q16	4Q16	1Q17	2Q17	3Q17P@	y-y	q-q	컨센서스@	GAP(③/④-1)	2015	2016	2017E	2018E	2019E			
매출액	49	67	60	60	63	27.4%	5.0%	50	25.0%	243	258	239	220	225			
영업이익	4	7	4	6	-1	적전	적전	2	-134.3%	26	27	16	13	13			
세전이익	4	2	9	6	1	-86.5%	-90.5%	0	N/A	30	24	18	13	13			
순이익	4	-2	7	5	0	-93.9%	-95.1%	0	N/A	23	16	13	10	9			
영업이익률	8.3%	10.1%	7.2%	9.3%	-1.1%	-9.4%p	-10.4%p	4.0%	-5.1%p	10.5%	10.4%	6.7%	5.9%	5.8%			
세전이익률	8.7%	2.5%	14.5%	10.1%	0.9%	-7.7%p	-9.2%p	0.0%	0.9%p	12.5%	9.5%	7.5%	5.9%	5.8%			
순이익률	7.5%	-2.2%	12.4%	7.7%	0.4%	-7.2%p	-7.4%p	0.0%	0.4%p	9.4%	6.4%	5.4%	4.5%	4.0%			

<표> 하이록코리아 3Q17 Review										201711107					(십억원, %)		
	3Q16	4Q16	1Q17	2Q17	3Q17P①	y-y	q-q	컨센서스②	GAP(③/④-1)	2015	2016	2017E	2018E	2019E			
매출액	40.9	46.8	47.0	48.3	50.7	24.2%	5.1%	39	31.5%	209.2	177.1	179.0	171.0	177.0			
영업이익	8.1	10.2	9.9	9.5	9.9	22.7%	4.9%	7	39.8%	53.6	37.3	36.0	31.0	33.0			
세전이익	5.2	14.9	5.8	13.3	11.3	119.0%	-14.9%	7	55.1%	57.0	39.9	35.0	33.0	35.0			
순이익	3.6	11.6	4.4	10.2	8.7	142.3%	-14.6%	5	62.3%	42.9	30.2	26.0	25.0	26.0			
영업이익률	19.8%	21.7%	21.1%	19.6%	19.6%	-0.2%p	0.0%p	18.4%	1.2%p	25.6%	21.0%	20.1%	18.1%	18.6%			
세전이익률	12.7%	31.9%	12.3%	27.6%	22.4%	9.7%p	-5.3%p	19.0%	3.4%p	27.2%	22.5%	19.6%	19.3%	19.8%			
순이익률	8.8%	24.8%	9.4%	21.1%	17.2%	8.4%p	-4.0%p	13.9%	3.3%p	20.5%	17.1%	14.5%	14.6%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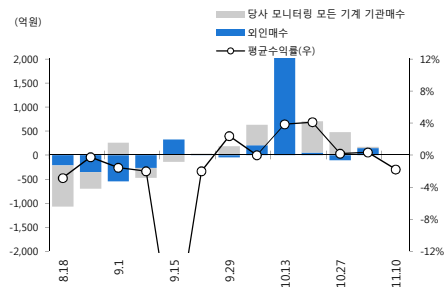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당사 기계 선호주



당사 관할 기계 업종 전체

▶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율



기계 업종 뉴스

건설기계

▲ 두산인프라코어, 中 디젤엔진 시장 진출 검토

<http://lnr.li/Ma2bE>

최근 중국 디젤엔진 시장 진입을 위한 경영 전략을 구상

관계자는 "환경규제 기준이 강화되면서 중국 내 디젤엔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

... "경쟁력 있는 G2엔진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함

2012년 자체 기술로 'G2' 개발에 성공하며 한 단계 도약: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10여 개 딜러사와 계약을 맺고 엔진 약 5만 대를 판매

내부 시장(captive market) 중심에서 사외 영역 거래(non-captive market)로 확장

지난 3분기 기준 사내 거래로 엔진 1만 2598대를, 사외 거래로 6594대를 판매: 전년 동기보다 각각 270대, 740대 가량 증가한 수치

오는 2028년까지 약 6만 9000여 대를 판매할 예정

지난 6월 세계 2위 지게차 업체인 독일 키온(KION) 그룹과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국내 1위 농기계 업체인 대동공업에도 엔진 6300대를 공급한 바 있음

탈원전 & ESS

▲ 두산중공업, 미국 발전용 ESS시장 공략 '속도'

<http://lnr.li/MnxPE>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정부로부터 발전용 전력저장장치(ESS) 수주

태양광뿐 아니라 풍력 발전용 ESS 시장에도 대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을 끌어올릴 방침

100% 자회사인 두산그리드텍(Doosan GridTech)은 지난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LADWP)으로부터 ...

... 약 200억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용 ESS 프로젝트를 따내 ...

... 2018년 9월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베이커스필드 인근에 위치한 비콘(Beacon)에 20MW~10MWh급의 ESS를 설치할 계획

2016년 6월 두산중공업은 미국 ESS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 보유 업체인 '원에너지시스템즈(1Energy Systems)'를 인수: 이후 사명을 두산그리드텍으로

같은 해 10월 두산그리드텍은 미국 텍사스 지역 전력 생산업체인 오스틴에너지(Austin Energy)와 600만 달러 규모의 태양광 연계 ESS 공급 계약

관계자는 "두산그룹에 편입되기 전 두산그리드텍의 연 매출은 100억 원가량이었다"며 ...

... "이전 단일 프로젝트가 200억 원에 달할 만큼 현지 ESS 시장에서 두산그리드텍의 입지가 높아진 상태"라고 말함



△ 두산중공업, 美 AMSC사와 5.5MW급 해상풍력발전 기술 제휴

<http://lnr.li/MDxdi>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기업인 AMSC(아메리칸슈퍼컨덕트코퍼레이션)이 개발한 5.5MW급 해상 풍력발전 기술을 제휴
5.5MW급 해상 풍력발전기는 대형 태풍에도 운전이 가능할 만큼 견고함을 자랑
두산중공업은 대만과 일본 등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
... AMSC로부터 5.5MW급 해상 풍력발전 시제품과 설계자료, 지적재산권 등 관련 기술에 대해 제휴
앞서 AMSC와 현대중공업 현 현대일렉트릭이 개발한 5.5MW급 해상 풍력발전기는 지난 3년 간 제주에 설치, 운전실적과 안정성을 인정
현대일렉트릭은 5.5MW급 모델 전장품 등 관련부품 공급 사업을 지속하면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

큰 기계들

▲ 두산중공업, 베트남 응이손 석탄화력발전 사업 착수

<http://lnr.li/IFmeV>

지난주 베트남 '응이손(Nghi Son) 2'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에 착수키로 결정: 2014년 수주를 따낸 지 3년여 만에 첫 삽을 뜨는 셈
2014년 12월 일본 마루베니(Marubeni), 한국전력공사(KEPCO) 등과 1조 8000억 원 규모의 베트남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
1330MW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하노이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땅호아(Thanh Hoa) 지역에 건설
관계자는 "응이손 프로젝트에서 올해 약 2000만 달러가량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설명

▽ 두산중공업, 임원 감축·사업 통폐합 구조조정 추진

<http://lnr.li/aPFDU>

임원 120여 명 중 30~50%를 줄이는 것을 검토
: 임원 중 상당수는 화력발전 사업 분야를 담당하는데, 정부가 출범 첫해부터 화력발전 축소에 나선 만큼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조직 통폐합도 추진
: 원자력BG-EPC BG-보일러BG-터빈발전기BG-서비스BG-유틸리티BG-주단BG 등 7개 사업부문과 관리·재무관리부문·기술연구원 등 3개 사업 외 부서로 구성
화력발전 관련 분야는 보일러BG와 서비스BG가 담당
: 보일러BG는 공사를 진행하며 서비스BG는 사후 관리를 하는 부서여서, 이 두 부문을 통합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
원자력BG의 경우 단계적으로 규모를 축소할 예정: 내년 9월에는 신고리 4호기가 완공될 예정이며, 신고리 5·6호기의 준공 예상 시기는 2022년
정부의 국책과제인 가스발전 사업부문은 강화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2022년을 목표로 가스터빈을 개발 중

▲ 현대엘리베이터, 중국 신공장 내년 3월 착공

<http://lnr.li/Vol4m>

내년 3월 상하이에 기존 공장을 대체할 생산 공장을 착공할 예정: 2020년 완공이 목표
상하이 1공장의 연간 생산 규모는 1만3000대에 이르지만 1994년에 조성돼 설비가 노후화
관계자는 "2015년 중국 생산 확대를 발표했을 당시 기존 공장 옆에 2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다"며 ...
... "하지만 대규모 산업단지가 새로 개발 되는 곳이 있어 아예 확장이전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
새로 짓는 공장의 연간 엘리베이터 생산규모는 2만5000대로, 이전 대비 2배가량 늘어날 예정
향후 상하이 신공장을 비롯해 국내 이전 공장도 스마트팩토리로 탈바꿈시킬 계획

△ 현대로템 인도서 전동차 96량 또 따냈다

<http://lnr.li/eVNlc>

7일 인도 업체 메가(MEGA)가 발주한 아메다바드 전동차 96량 사업을 약 1,776억원에 수주
아메다바드 전동차 인도 구자라트주의 아메다바드 시내길이 20.7km를 동서로 잇는 신규 노선에 투입
2019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
2001년 델리메트로 RS1 전동차 240량을 수주, 인도 시장에 처음 진출한 현대로템은 ...
... 2007년 델리메트로 RS3, 2009년 방갈로 전동차 150량, 2012년 하이데라바드 전동차 171량, 2013년 델리메트로 RS10 전동차 486량 등 ...
이번 사업을 포함해 총 1,397량을 인도에서 수주

△ 현대로템, 1882억원 규모 현대제철 당진공장 설비작업 수주

<http://lnr.li/nKYCA>

계약 체결일은 11월7일이며 계약종료일은 2019년 11월30일: 현대로템은 1년간 하자보증의 책임

한진중공업

▷ 난개발 우려 '한진중' 땅' 건축제한 요청

<http://lnr.li/CaZDG>

59개 필지로 분할·매각돼 난개발이 우려되는 옛 한진중공업 다대 부지(본보 8일 자 2면 보도)와 관련해 관할 사하구청이 '건축 행위 제한' 카드
비록 사유지이지만, 공공을 위한 최적의 공간인 만큼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땅 지키기'에 나선 것
부지는 올 9월 28일 기존 3필지에서 59필지로 분할돼 법인 14곳 등 모두 50명에게 매각된 상태
사하구청은 부산 사하구 다대동 370-1 일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건축 허가를 보류하는 요청 공문을 부산시에 보낼 예정이라고 8일 밝힘
관련법상 지자체의 건축 허가 제한은 주변 여건에 따라 2년까지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1년 더 연장이 가능
>> 기사 제목만 보시고 악재로 보실 수도 있는데, 한진중공업이 이미 매각한 땅에 건축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보도입니다. 한진중공업과 관계 없습니다.

작은 기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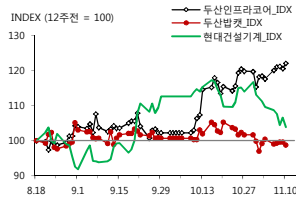
△ 삼강엠엔티·유암코에 매각된 고성조선, 법정관리 졸업

<http://lnr.li/vzK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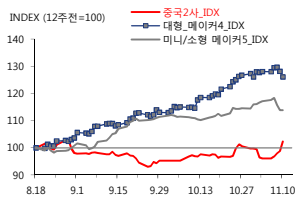
고성조선해양은 모회사인 STX조선해양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직후인 지난해 7월 회생절차
지난 9월 삼강엠엔티-유암코 컨소시엄이 980억원에 고성조선해양을 인수
삼강엠엔티-유암코 컨소시엄은 고성조선해양 사업포트를 리모델링을 조정해 ...
... LNG선박 등 대형수선선박 전문단지로 특화하는 등 회생에 나설 계획: 컨소시엄은 2022년 매출 1조원을 목표
삼강엠엔티와 유암코 컨소시엄이 관리단을 파견하고, 경영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



▶ 한국시장 상장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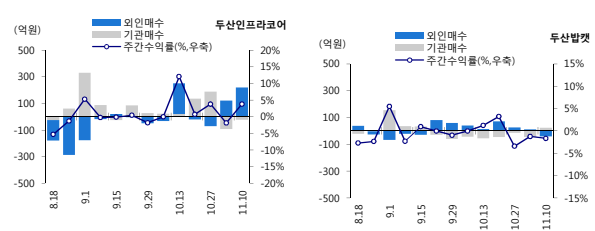


▶ 대형 vs. 미니/소형 vs.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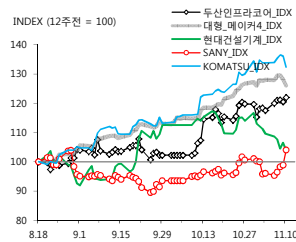


건설장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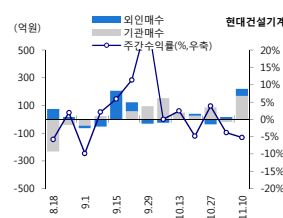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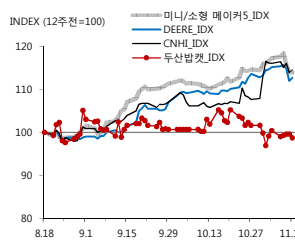
▶ 건설장비 메이커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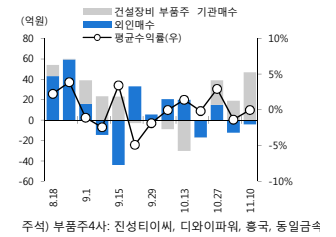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중, 사니, 고마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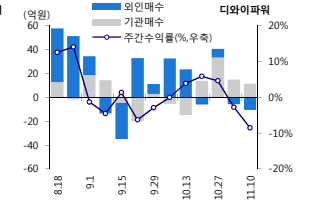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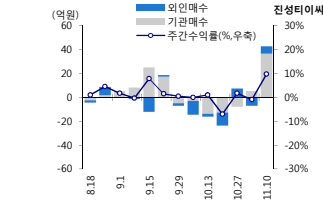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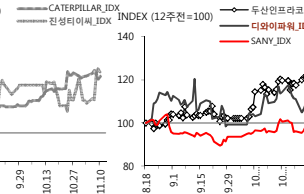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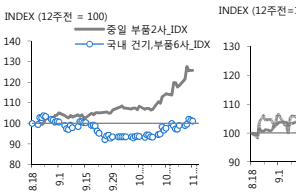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발켓



▶ 건설장비 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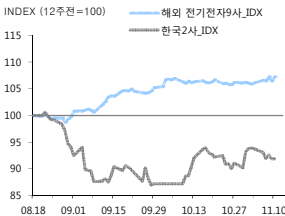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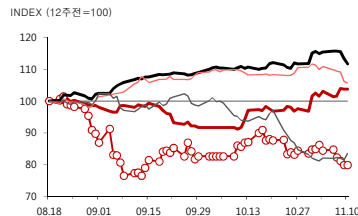


중전기

▶ 한국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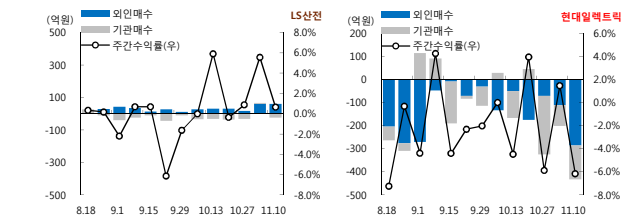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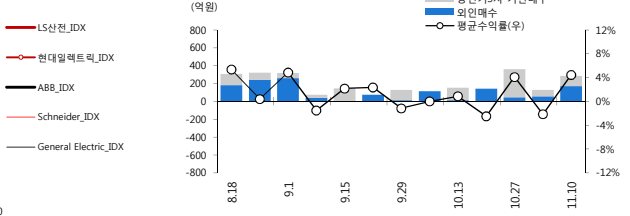


▶ 중전기 회사들 주가 Index



중전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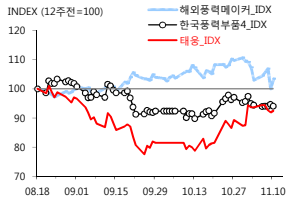
▶ 중전기3사(현대일렉트릭, LS산전, 효성)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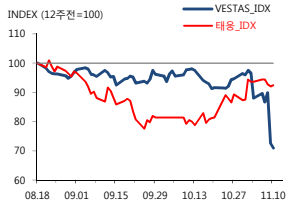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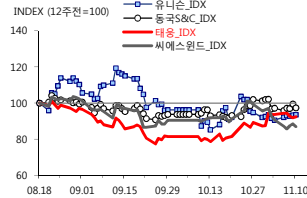


풍력

▶ 한국 풍력 부품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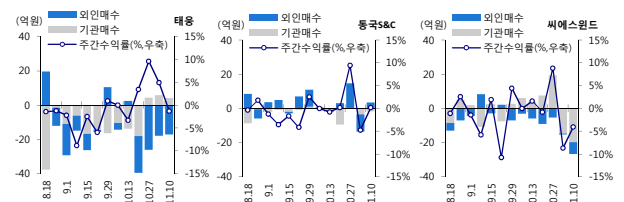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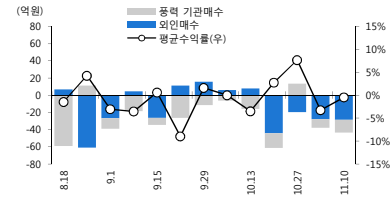


▶ 한국 풍력부품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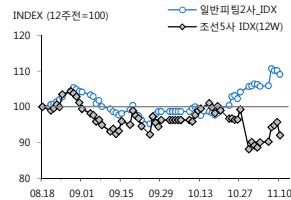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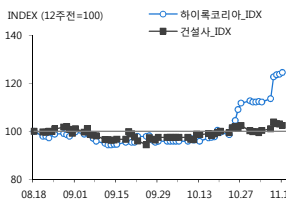
풍력 수급

▶ 풍력부품4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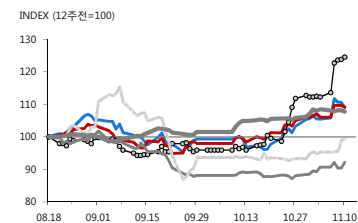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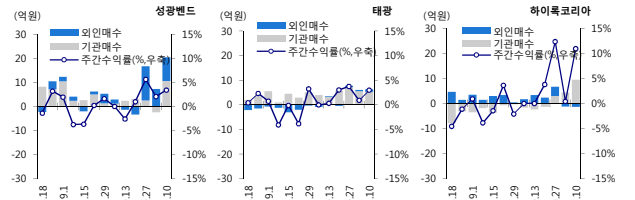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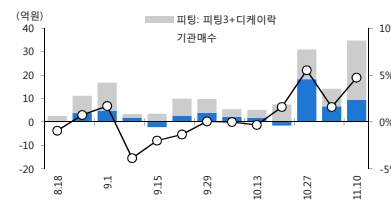
▶ 피팅 VS 전방1 건설



▶ 피팅 및 밸브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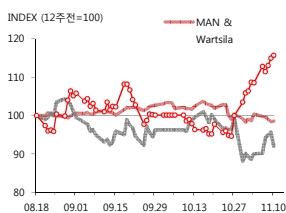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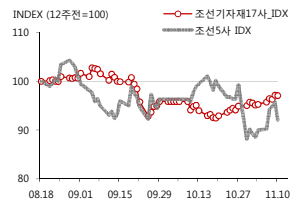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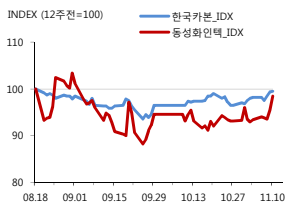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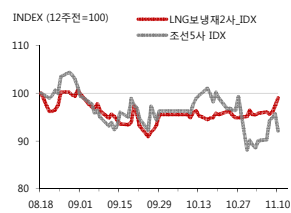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외 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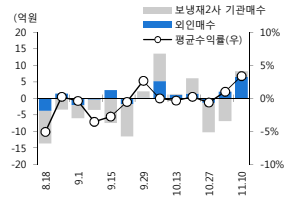


▶ 엔진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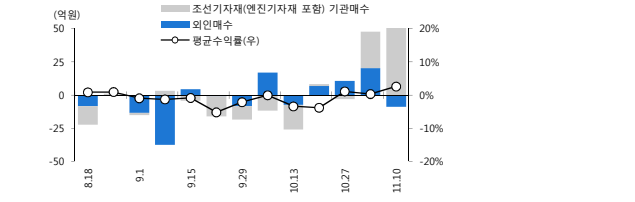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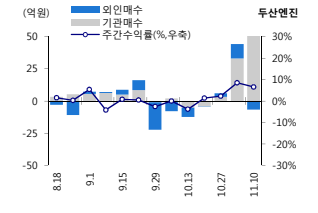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 보냉재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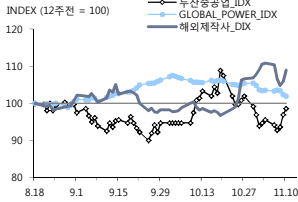
▶ 두산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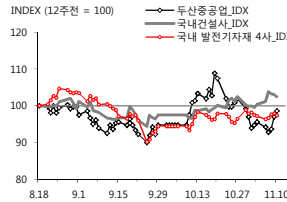


발전 및 발전기자재

▶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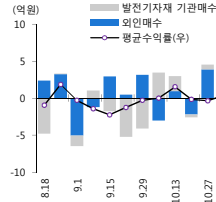


▶한국EPC vs 두산중공업 및 발전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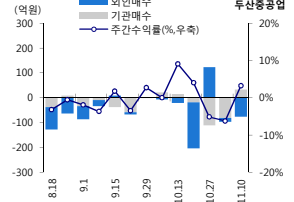


발전업 수급

▶발전기자재5사(두산중공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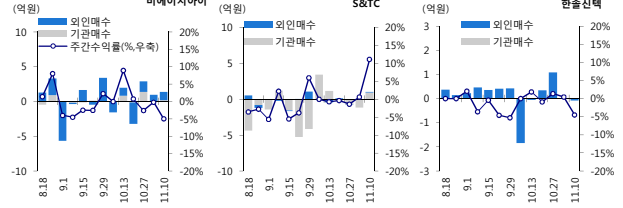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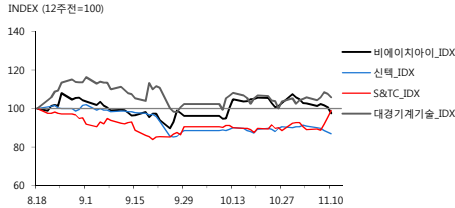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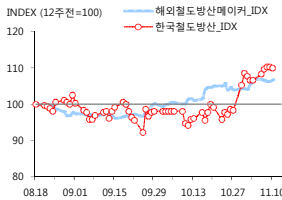
주식) 비에이지아이, S&TC, 한솔신텍, 대경기계기술, 케이씨코트렐

▶발전기자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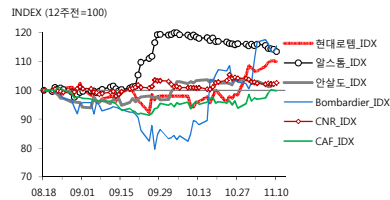


철도/승강기

▶철도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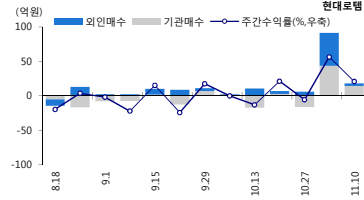


▶철도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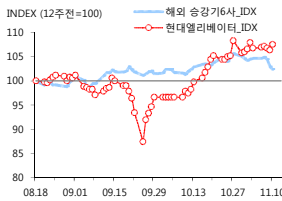


철도/엘리베이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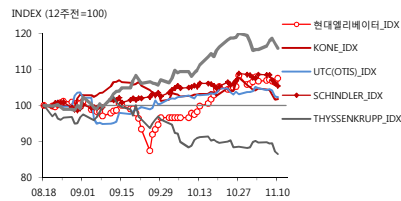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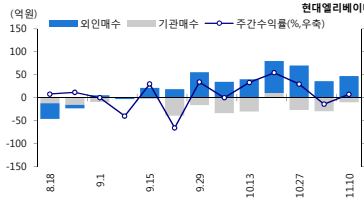
▶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



▶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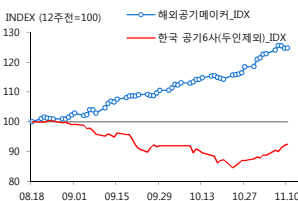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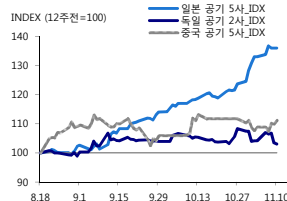


공작기계

▶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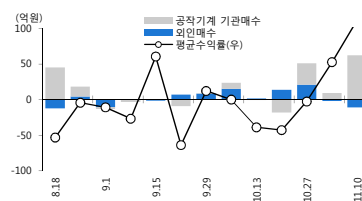


▶Global Peer - 지역별



공기 수급

▶공작기계 부품 수급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회사는 해당 종목의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최광식, 원민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 권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7월1일부터 적용)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록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7-09-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8.3 %	11.7 %	-